

#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 준비 완료

### 임실군, 고용농가 대상 사전교육 완료... 전년 대비 인력 35% ↑

임실군은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앞서 고용농가를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권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은 지난 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84농가를 비롯한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주 대상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앞두고 고용농가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제도 운영사항과 법적 의무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농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주요내용과 절차를 설명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권리와 고용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필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신규 기술사 준공으로 운영에 따른 운영기준과 인권 침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임금지급 및 근로조건 보장 등 고용주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전문강사가 참여해 근로자 인권존중과 차별금지, 폭력예방, 다문화 이해와 소통 등 인권



임실군은 지난 5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84농가를 비롯한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주 대상 교육을 진행했다.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중심의 사례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농가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과 관련해 겪는 애로사항과 궁금증을 자유롭게 제기했으며 담당부서가 직접 답변하며 제도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한편, 임실군은 법무부 지침에 따른 필수 고용주 교육을 2회에 걸쳐 모두

완료함에 따라 올해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356명중 280여명을 상반기 내 순차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입국한 근로자들은 교육과 외국인 등록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각 농가에 배치돼 본격적인 농촌 일손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오는 3월 외국인 근로자 가족사가 완공되면 보다 안정적인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농작업 효율을 높이고 지역농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 순창군옥천장학회, 제22기 옥천인재숙 수료식

(제)순창군옥천장학회는 지난 6일 옥천인재숙 지성관에서 제22기 옥천인재숙 수료식을 개최하고, 인재숙에서 학업에 매진해 온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수료식은 수료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의 학업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진로와 성장을 응원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올해 진학 성과를 살펴보면, 수의예, 생명과학, 공학, 교육, 사회과학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대학과 거점 국립대학에 진학하는 등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이공계 및 보건계열 진학 비율이 높았던 점이 눈에 띈다. 이러한 성과는 학생 중심의 학습 환

경 조성과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순창군의 교육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평가된다.

현재 옥천인재숙에는 전문 강사 11명이 활동 중이며, 각자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강사진의 교육 지원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성과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강인형 원장은 축사를 통해 "수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며, "여러분이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제수용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모두 적합'

순창군농업기술센터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 품목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명절 성수기 소비가 많은 사과, 배, 마늘, 시금치 등 총 5개 품목 23종(채소류 13종, 과일류 5종,

버섯류 3종, 견과·종실류 1종, 곡류 1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463개 농약 성분에 대한 정밀 검사가 이뤄졌다.

검사 결과, 23종 중 15종에서는 잔류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8종 역시 모두 법적 허용 기준치



이내로 검출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드론 실증도시 선정 만전

### 국토부 구축사업 공모 신청 완료... 4년 연속 선정 대응 돌입

남원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지난 5일 신청을 완료하고, 4년 연속 실증도시 선정을 목표로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실증하고, 이를 상용화로 연계해 국산 드론 기술 고도화와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남원시는 그간 축적해 온 다양한 드론 실증 경험과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드론 실증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역량을 집중, 남원시는 드론 레저스포츠와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2개 분야에 참여한다.

드론 레저스포츠 분야에서는 국산 드론 기체를 중심으로 한 실증을 통해 글로벌 확장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산 드론 보급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드론 스포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드론 문화 확산을 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남원시는 국산 드론 기체를 활용한 드론 레이싱 대회 개최, 실증 인프라 구축, 운영 노하우 축적 등을 통해 국내 드론 레저 산업을 이끌어 왔다. 2026년에는 이를 한 단계 발전



시켜, 남원을 국내 드론 레저스포츠의 중심지이자 국제 교류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산림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 산불 대응 안전체계 구축 등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에 드론을 적용해, 단순 기술 실증을 넘어 행정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공공서비스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경험은 이번 공모의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운봉읍 덕산리 일원 14.47㎢ 규모의 비행 가능 구역은 산불감시·진화 등 공공분야 드론 실증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규제 완화와 다양한 지형 조건을 동시에 갖춘 실증 환경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강점으로 평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딸기 세균모무늬병 분포조사 실시

임실군은 최근 딸기 농가의 안정적인 딸기 재배에 방해가 되고 있는 '세균모무늬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조사기간을 정하고, 관내 딸기 농가를 대상으로 분포 조사에 나섰다.

현재까지 관내 해당 병해의 발생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휴식 모를 잠재적 발병 요인 파악 및 예방을 실시해 지역 내 유입을 차단하고, 발병 시 인근 농가나 외부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도 진행했다.



임실군농업기술센터는 현장에 방문해 직접 잎의 상태를 정밀 관찰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임실=전홍영 기자

## 남원시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3월부터 추진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지역 시민과 남원시 소재 직장인 1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

이 사업은 활동량계(스마트 밴드)와 모바일 앱(체중건강)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맞춤형 서비스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전담팀(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6개월간 참여자에게

1:1 맞춤형 건강 상담과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대상은 만 19세부터 65세 미만의 남원시 거주자 또는 남원시 소재 직장인 100명이며, 최초 건강검진에서 건강위험 요인(혈압, 혈당, 복부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자를 우선 선정, 다만 질환자와 약물 복용자는 제외하고, 모집 기간은 10일부터 정원 충원 시 조기 마감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 등

#### 남원시, 14~18일 공영주차장 5개소 무료 개방

남원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을 전면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고향 방문 귀성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련, 대상 주차장은 시청 주차장(197면), 도통지구 주차타워(258면), 시장 4가 주차장(81면), 구 군청 주차장(95면), 관왕로 옆 주차장(55면) 등 총 5개소이고, 기존 유료 공영주차장 정기권 사용자에게는 무료 개방 기간 5일분의 요금 할인 혜택을 3월에 적용된다.

또한, 주차장 입구 현수막 게시, 공식 SNS 및 홈페이지 공지,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 기간 5일분의 요금 할인 혜택을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설 명절 대비 상하수도 비상대책반 운영

순창군이 설명절을 앞두고 연휴 기간 중 상하수도 사고와 한파로 인한 동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하수도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주민 대상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설명절 연휴 기간 동안 상하수도 시설물 이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급수 중단이나 시설물 고장 등 각종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온 급강하가 예상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및 옥내·외 급수관 동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량기함 내부 보온재 충전 △노출된 수도관 보온 조치 △잠자기간 외출 시 수도를 약하게 틀어두기 등 겨울철 동파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설명절 연휴 동안 주민들이 불편 없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상하수도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동파 예방 수칙과 물 절약 실천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